

# 보건복지 ISSUE & FOCUS

## 소비자의 처방약값 부담 인식과 저렴한 약 선택 의향<sup>1)</sup>

박실비아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나경 보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특히 만료 의약품 시장에서 동일 성분 제품 간 가격 경쟁은 의학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으면서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처방 의약품을 사용하는 일반인 2000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처방약값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응답자의 70% 이상이 처방약의 동일 성분으로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환자들이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을 사용하여 지불 약값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이용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의 약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01. 서론

-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 측면에서 특히 만료 의약품은 주요한 전략 시장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약품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sup>2)</sup>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1) 이 글은 '박실비아, 이나경, 박은자, 정연. (2020).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가공한 것임.

2) OECD. (2015).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 이론적으로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동일 성분 동일 제제 내 제품 수가 많아질수록 약가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음.
- ◆ 우리나라는 제네릭 사용률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사용을 통한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효과가 미흡한데, 이는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의 사용이 촉진되는 기전이 미흡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제네릭 사용률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품비 점유율은 각각 56%, 49%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제네릭 사용이 증가하더라도 약품비 절감 효과가 낮음을 의미함.<sup>3)</sup>
    - OECD 국가의 제네릭 사용률 평균은 52%, 제네릭의 약품비 점유율은 25%로 제네릭 사용 증가에 따른 약품비 절감 효과가 분명함.<sup>4)</sup>
  - 의약품을 선택, 사용하는 수요 측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택할 동기가 제도적으로 미흡함.
    - 약가제도에서 특허 만료 의약품은 동일 성분 동일 약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 차이가 거의 없으며, 환자는 약값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므로 체감하는 약가 차이는 더욱 작음.
- ◆ 건강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약품비 상승 문제를 일찍부터 경험한 외국에서는 환자 측에서의 저렴한 약 선택 동기를 높여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에서 약가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
  -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993년, 2003년부터 참조가격제를 시행해 왔고<sup>5)</sup> 프랑스는 환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즉각 인정해 주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함.<sup>6)</sup>
  - 미국은 연방의 메디케어와 민간보험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조제 시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크게 두는 등급제(tier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sup>7)</sup>
- ◆ 이 연구에서는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수요자 측의 의약품 선택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 처방약값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에서 동일 성분 약제 중 저렴한 제품이 선택되는 환자 중심의 수요 기전을 탐색하기 위해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함.

3) 박실비아, 김대중, 박은자, 정연, 하솔잎, 김보은. (2020).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5) iGES. (2017). Reimbursement of Pharmaceuticals in Germany. Berlin: iGES; Goujard, A. (2018). France: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Health-care System.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455.

6) Rottembourg, J. & Nasic-Labouze, J.(2015). The implementation of generics in France. GaBi Journal, 4(3)., pp. 136-141.

7) Gilman, B. H. & Kautter, J. (2007). Impact of Multitiered Copayments on the Use and Cost of Prescription Drugs among Medicare Beneficiaries. Health Services Research, 43., pp. 478-495.

## 02. 조사 방법

### ◆ 조사 대상

- 처방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69세의 일반 소비자로 지속적 약 복용 여부에 따라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을 설정함.
  - 그룹1: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의원을 이용하고 처방약을 조제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 1008명
  - 그룹2: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처방약이 있는 그룹 1018명
- 조사 전문업체의 패널을 표집틀로 하여 2020년 5월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 추출함.
  - 그룹1은 지역, 성, 연령 분포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
  - 그룹2는 성별 분포의 비례 할당 추출

###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기간: 2020년 6월 8일 ~ 6월 23일

### ◆ 조사 내용

〈표 1〉 설문조사 내용

영역	문항 내용
본인의 처방약값에 대한 인식	- 처방약값 수준 - 처방약에 대한 주관적 부담 인식
처방약의 높은 가격 제품 선호 여부	- 처방약에서 높은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는지 여부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 선택 의향	- 의사가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 권유 시 사용 의향 -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약에 대한 자발적 선택 의향

## 03. 조사 결과

### 1) 응답자 일반사항

- ◆ 그룹1과 그룹2 모두 남성, 여성이 고르게 분포함.

- ◆ 그룹1은 50대가 가장 많았고(23.5%) 다음으로 40대가 많았으며, 그룹2는 60대가 가장 많았고(39.9%) 다음으로 50대, 40대가 많았음.
- ◆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는 그룹1과 그룹2가 유사하여 300만~5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그룹1은 82.5%, 그룹2는 76.1%이었음. 직종 분포는 두 그룹 모두 직업군1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그룹1		그룹2	
		명	%	명	%
전체		1008	100.0	1018	100.0
성별	남성	516	51.2	507	49.8
	여성	492	48.8	511	50.2
연령	19~29세	187	18.6	69	6.8
	30~39세	187	18.6	92	9.0
	40~49세	224	22.2	190	18.7
	50~59세	237	23.5	261	25.6
	60~69세	173	17.2	406	39.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2	2.2	33	3.2
	100만~300만 원 미만	202	20.0	217	21.3
	300만~500만 원 미만	342	33.9	355	34.9
	500만~700만 원 미만	260	25.8	220	21.6
	700만 원 이상	182	18.1	193	19.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76	17.5	243	23.9
	대졸 이상	832	82.5	775	76.1
직종	직업군1 <sup>1)</sup>	522	51.8	474	46.6
	직업군2 <sup>2)</sup>	104	10.3	102	10.0
	직업군3 <sup>3)</sup>	74	7.3	84	8.3
	직업군4 <sup>4)</sup>	308	30.6	358	35.2

주: 1)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2)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4) 군인, 전업주부, 학생, 무직, 기타.

자료: 저자 작성.

## 2) 본인의 처방약값에 대한 인식

- ◆ 처방약값으로 본인 부담 지불하는 금액을 월평균 또는 연평균 금액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그룹2의 처방약값이 그룹1에 비해 더 높았음.

- 그룹1은 월평균 처방약값이 평균 2만 3315원, 연평균 처방약값은 평균 11만 3717원이었음.
- 그룹2는 월평균 처방약값이 평균 3만 1997원, 연평균 처방약값은 평균 25만 2238원이었음.

〈표 3〉 월평균 또는 연평균 처방약값 (본인부담금)

(단위: 명,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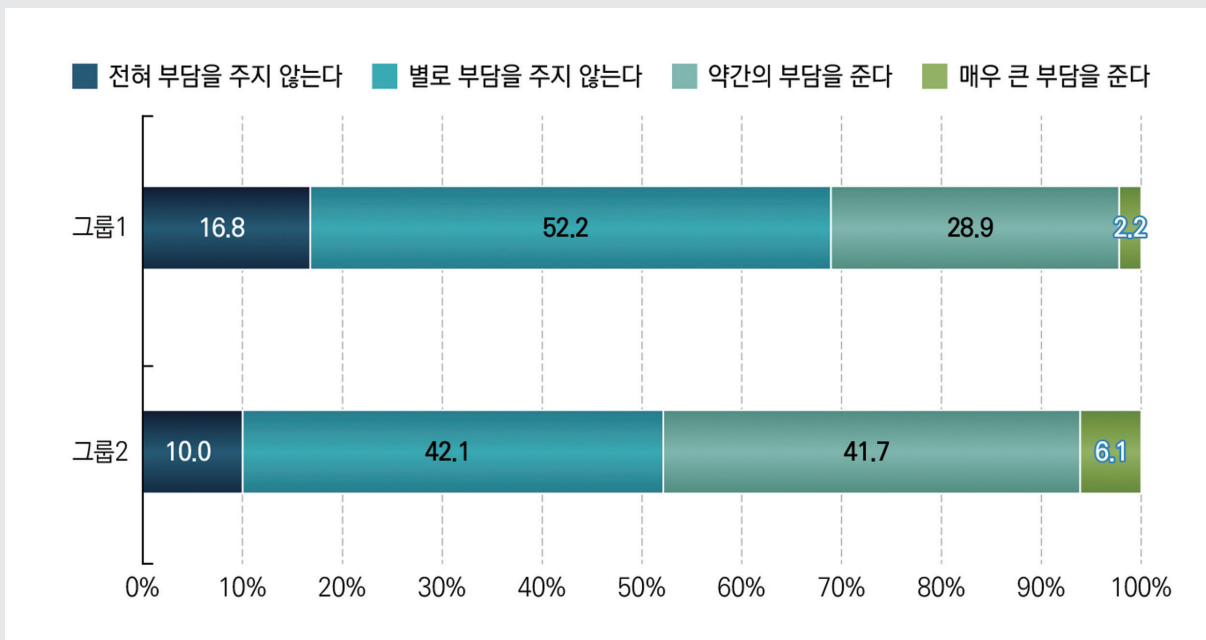
구분	그룹1 (N=1008)		그룹2 (N=1018)	
	응답자 수	처방약값 평균	응답자 수	처방약값 평균
월평균 처방약값	402	23,315.4	703	31,997.2
연평균 처방약값	606	113,717.8	315	252,238.1

자료: 저자 작성.

◆ 처방약값의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

-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그룹1(69%)이 그룹2(52.1%)보다 더 높았음.

[그림 1] 처방약값의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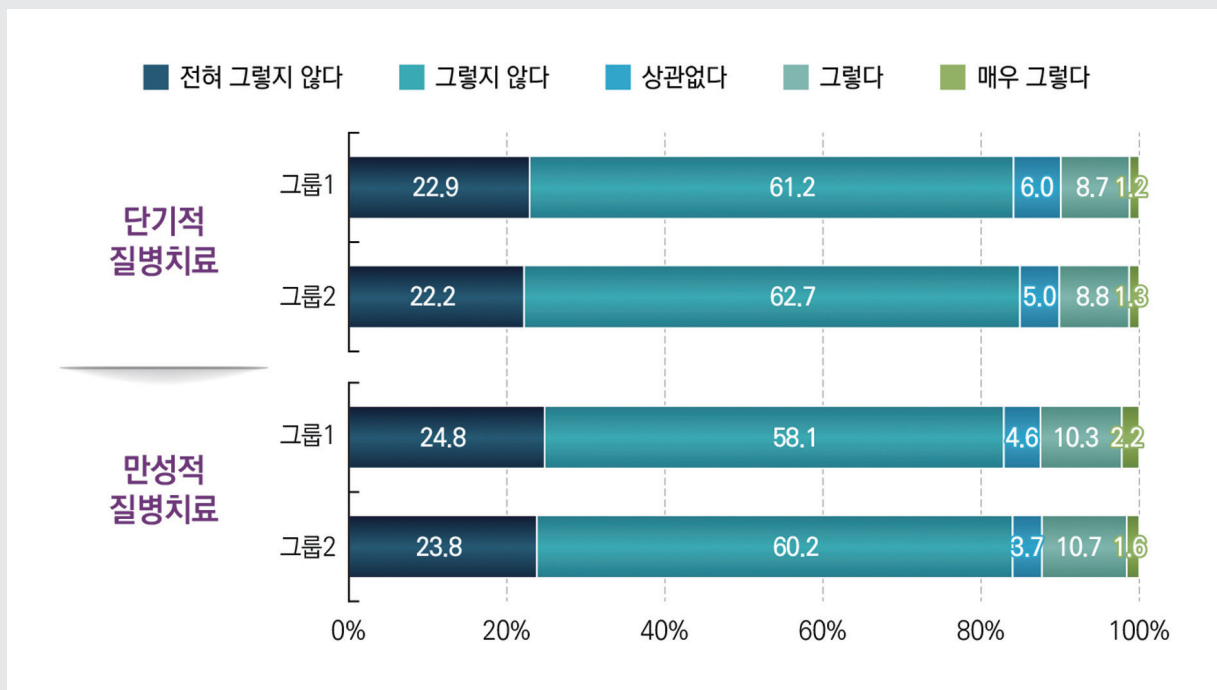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3) 처방약의 높은 가격 제품 선호 여부

◆ 의사가 자신의 약을 처방할 때 동일한 성분의 약 중에서 가격이 높은 약을 처방하는 것을 선호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

- 단기적 질병 치료, 만성적 질병 치료 모두에서 그룹1과 그룹2 모두 응답자의 80% 이상이 자신의 처방 의약품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 중 가격이 높은 약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함.

[그림 2] 동일 성분 의약품 처방에서 가격이 높은 약의 선호 여부



자료: 저자 작성.

### 4) 의사 권유 시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 사용 의향

◆ 처방받아 사용하던 약이 있다고 할 때 의사가 기존 처방약과 동일한 성분의 더 저렴한 다른 제품을 권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더 저렴한 약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 그룹1(91.5%)이 그룹2(85%)에 비해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 사용 의향 비율이 약간 더 높음.

〈표 4〉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다른 제품(처방약) 사용 의향 - 의사 권유 시

구분	그룹1 (N=1008)		그룹2 (N=1018)	
	명	%	명	%
사용 의향 있음	922	91.5	865	85.0
사용 의향 없음	86	8.5	153	15.0

자료: 저자 작성.

- ◆ 의사 권유 시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약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의사가 추천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다른 제품(처방약) 사용 의향이 있는 주된 이유(1개) - 의사 권유 시

구분	그룹1 (N=922)		그룹2 (N=865)	
	명	%	명	%
의사가 추천하였으므로 사용할 것이다	561	60.8	576	66.6
가격이 더 저렴하므로 사용할 것이다	352	38.2	282	32.6
기타	9	1.0	7	0.8

자료: 저자 작성.

- ◆ 의사 권유 시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약을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최대 2개까지 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한 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함.
  - 다음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약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가격이 더 저렴한 약은 효능·효과가 더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표 6〉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다른 제품(처방약) 사용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최대 2개) - 의사 권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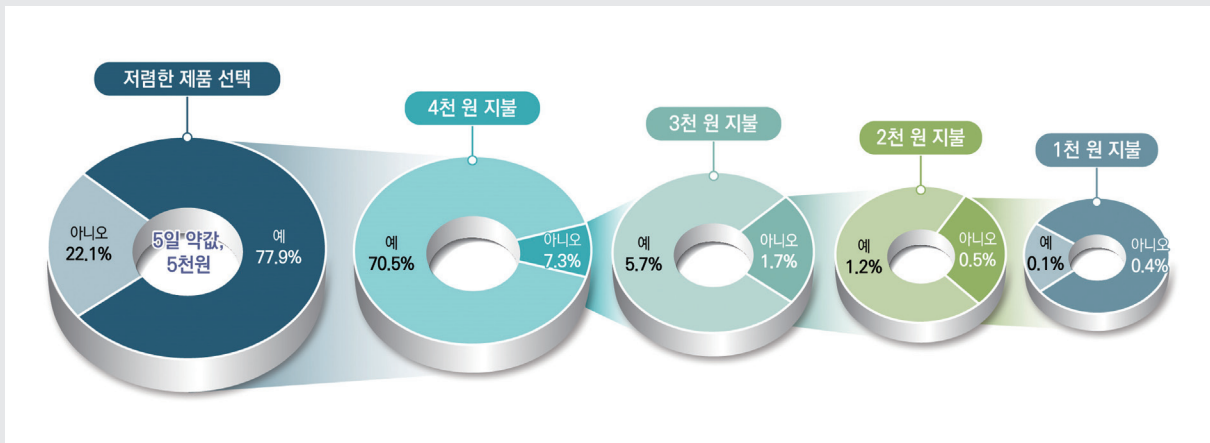
구분	그룹1 (N=86)		그룹2 (N=153)	
	명	%	명	%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한 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	45	52.3	78	51.0
기존에 사용하던 약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28	32.6	50	32.7
가격이 더 저렴한 약은 효능·효과가 더 낮을 것이다	22	25.6	48	31.4
가격이 더 저렴한 약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16	18.6	37	24.2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천한다고 생각한다	19	22.1	26	17.0
가격이 더 저렴한 약은 더 좋지 않은 시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12	14.0	17	11.1
기타	0	0.0	2	1.3

자료: 저자 작성.

## 5)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 선택에 대한 자발적 의향

- ◆ 그룹1에서, 감기나 통증 같은 단기간 질병 치료를 위한 5일분의 약값이 5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처방 받은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다른 회사의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77.9%(785명)가 그렇다고 답함.
  - 전체 응답자 중 70.5%(711명)는 4000원만 지불해도 된다고 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하였고, 5.7%(57명)는 3000원, 1.2%(12명)는 2000원, 0.1%(1명)는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함.

[그림 3] 기간 질병 치료를 위한 약 선택에서 처방약과 성분이 동일하고 값은 더 저렴한 다른 회사의 제품 선택 의향 (그룹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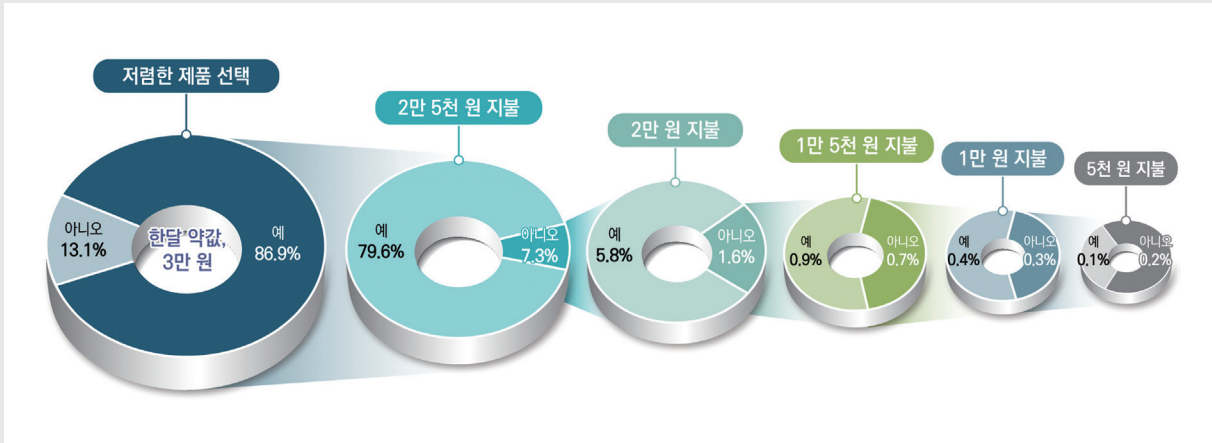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 그룹1에서, 만성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1년 내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값이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처방 받은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다른 회사의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86.9%(876명)가 그렇다고 답함.
  - 전체 응답자 중 79.6%(802명)는 2만 5000원만 지불해도 된다고 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하였고, 5.8%(58명)는 2만 원, 0.9%(9명)는 1만 5000원, 0.4%(4명)는 1만 원, 0.1%(1명)는 5000원만 지불해도 된다고 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함.



[그림 4]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약 선택에서 성분이 동일하고 값은 더 저렴한 다른 회사의 제품 선택 의향 (그룹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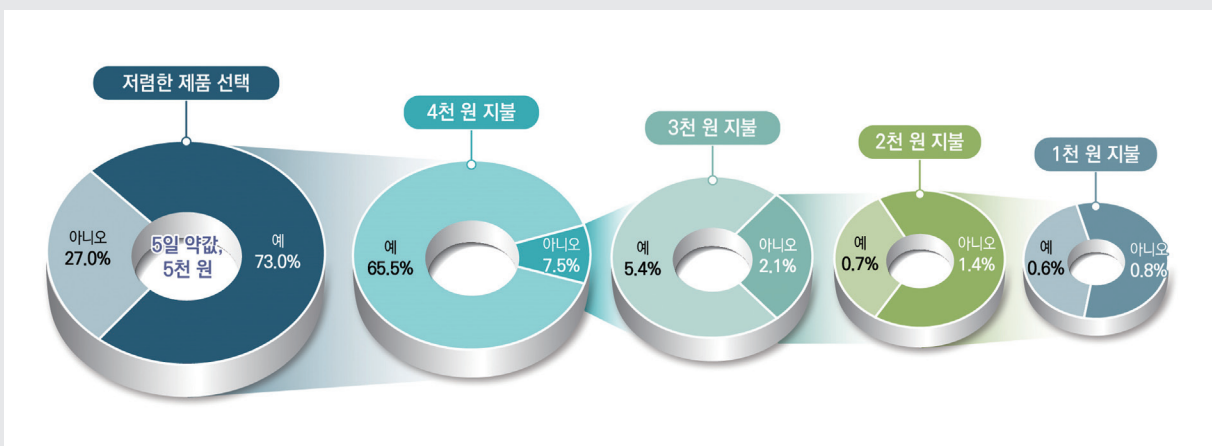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그룹2에서, 감기나 통증 같은 단기간 질병 치료를 위한 5일분의 약값이 5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처방 받은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다른 회사의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73.0%(743명)가 그렇다고 답함.

- 전체 응답자 중 65.5%(667명)는 4000원만 지불해도 된다고 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하였고, 5.4%(55명)는 3000원, 0.7%(7명)는 2000원, 0.6%(6명)는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함.

[그림 5] 단기간 질병 치료를 위한 약 선택에서 처방약과 성분이 동일하고 값은 더 저렴한 다른 회사의 제품 선택 의향 (그룹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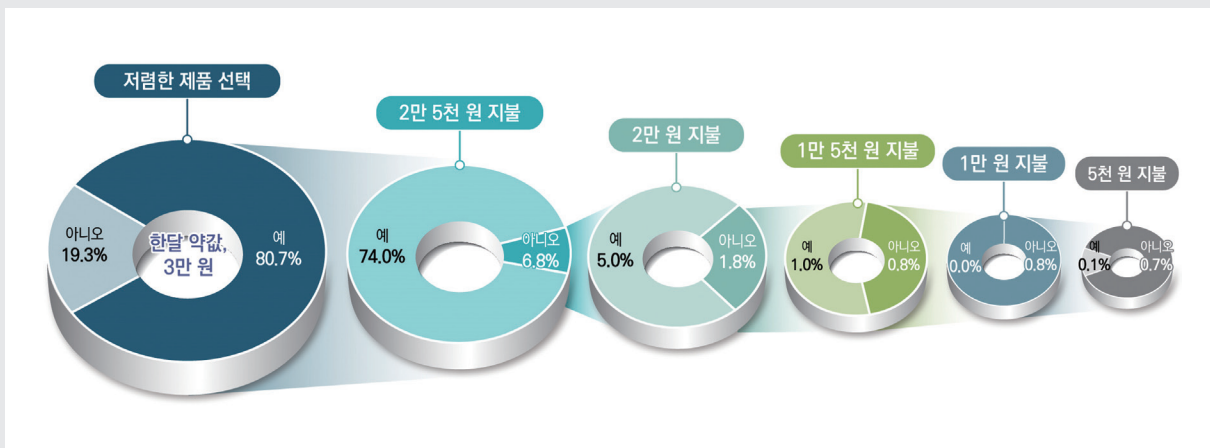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그룹2에서, 만성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1년 내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값이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처방 받은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다른 회사의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80.7%(822명)가 그렇다고 답함.

- 전체 응답자 중 74.0%(753명)는 2만 5000원만 지불해도 된다고 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하였고, 5.0%(51명)는 2만 원, 1.0%(10명)는 1만 5000원, 0.1%(1명)는 5000원만 지불해도 된다고 할 때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함.

[그림 6] 만성 질병 치료를 위해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약 선택에서 성분이 동일하고 값은 더 저렴한 다른 회사의 제품 선택 의향 (그룹2)



자료: 저자 작성.

## 04. 고찰 및 정책적 함의

◆ 응답자들은 처방약값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약값을 더 낮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처방약값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지만(그룹1: 69.0%, 그룹2: 52.1%),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단기적 질병과 만성 질병 모두에서 저렴한 약을 선택하여 본인부담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답함.
- 동일 성분의 약들 중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출 의향은 그룹1과 그룹2 모두 단기적 질병 치료를 위한 약 사용에서보다 만성 질병 치료를 위해 1년 내내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높았음(그룹1: 단기

77.9% vs. 만성 86.9%, 그룹2: 단기 73.0% vs. 만성 80.7%).

- 현재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그룹2의 응답자들이 그룹1에 비해 처방약값 부담 수준이 더 높았으나, 저렴한 약의 선택 의향은 더 낮았음.
    - 이는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자신의 약에 대한 유지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룹2는 실제로 현재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고 그룹1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므로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약에 대한 질문이 갖는 의미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
  - 저렴한 약을 선택할 의향은 의사의 추천이 있을 때 훨씬 높아져(그룹1: 91.5%, 그룹2: 85.0%), 전문가의 지지가 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한 선택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 환자들은 동일 성분 제품 중 저렴한 약을 사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이용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의 약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현재 환자는 처방받은 약과 성분이 동일한 다른 제품의 존재와 가격 차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며, 처방 약제비의 일정 비율(외래 30%)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므로 동일 성분 제품 간의 약가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동기가 매우 약함.
  - 조사 결과 환자들은 저렴한 약을 사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의향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으면서 경제적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환자의 약제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편하여 동일 성분에서 저렴한 약을 선택할 동기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약가 경쟁을 촉진하고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에서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의약품 수요 측에서 낮은 가격의 제품을 선호함으로써 실현 가능함.
  - 환자가 지불하는 약제 본인부담금 구조를 개편하여 동일 성분에서 대체 가능한 여러 제품 중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하여 환자의 선택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는 동일 성분 내 대체 가능한 제품의 수가 많고 사용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가격 차이를 고려한 제품 대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분으로서 시장 규모가 커서 약품비 절감에 미치는 효과가 큰 일부 성분에서 시도할 수 있음.
    - 환자의 선택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차이가 분명히 체감될 만큼 커야 하며, 전문가의 지지가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함. 의사, 약사도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서 동일 성분 내 낮은 약가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지불체계가 변화될 필요가 있음.
    - 동일 성분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의약품 선택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과, 부작용,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의약품 규제 행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함.

집필 박실비아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나경 (보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 044-287-8134